

전주 관광택시, 7월부터 본격 운행

시, 21일까지 개인택시 단위조합 등 통해 운행자 모집 관광객 동선 한옥마을 중심에서 시 전역 확대될 듯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명품해설과 안전운행을 제공하는 1000번 명품버스에 이어 오는 하반기부터는 '전주 관광택시'가 운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관광객들에게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주시내버스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명품버스를 운영해왔다.

전주시는 연간 1000만명이 찾는 한옥마을의 관광효과를 전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전주 관광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관광택시 운행자 모집과 맞춤형 관광교육 및 친절교육 등을 거쳐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동선이 기존 한옥마을 중심에서 전주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관광택시 운행자 선발을 위해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5일간 전주 개인택시 단위조합과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관광택시 운행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65세 이하 전주시 택시운수종사자 중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택시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불친절 민원신고를 받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다.

시는 모범운전자로서 표창을 수여한 경력과 외국어회화 기능여부, 무사고 운전기간, 운수종사자로서 기본마인드 검증 등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20명의 운전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접수는 개인택시는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전주시 개인택시단위조합에, 법인택시는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한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각각 기한 내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최종 선발된 20명의 관광택시 운행자를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교육과 관광가이드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전문 관광택시 가이드를 양성할 계획이다.

선발된 전주 관광택시 운행자는 오는 7월부터 일반택시영업을 하면서 관광택시 예약 및 배차 시 관광택시를 우선 운행하게 되며, 운행 중 전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명소, 맛집 안내 등 기본 관광가이드를 병행하게 된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내실 있는 전주 관광택시 운영을 통해 택시업계의 만성적 불황을 타계하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도시로서의 전주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전주 관광택시 운행자 모집에 재능과 관광가이드에 관심이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원신고를 받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다.

시는 모범운전자로서 표창을 수여한 경력과 외국어회화 기능여부, 무사고 운전기간, 운수종사자로서 기본마인드 검증 등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20명의 운전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접수는 개인택시는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전주시 개인택시단위조합에, 법인택시는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한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각각 기한 내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최종 선발된 20명의 관광택시 운행자를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교육과 관광가이드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전문 관광택시 가이드를 양성할 계획이다.

선발된 전주 관광택시 운행자는 오는 7월부터 일반택시영업을 하면서 관광택시 예약 및 배차 시 관광택시를 우선 운행하게 되며, 운행 중 전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명소, 맛집 안내 등 기본 관광가이드를 병행하게 된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내실 있는 전주 관광택시 운영을 통해 택시업계의 만성적 불황을 타계하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도시로서의 전주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전주 관광택시 운행자 모집에 재능과 관광가이드에 관심이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신청자격은 65세 이하 전주시 택시운수종사자 중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택시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불친절 민원신고를 받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다.

시는 모범운전자로서 표창을 수여한 경력과 외국어회화 기능여부, 무사고 운전기간, 운수종사자로서 기본마인드 검증 등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20명의 운전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접수는 개인택시는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전주시 개인택시단위조합에, 법인택시는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한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각각 기한 내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최종 선발된 20명의 관광택시 운행자를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교육과 관광가이드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전문 관광택시 가이드를 양성할 계획이다.

선발된 전주 관광택시 운행자는 오는 7월부터 일반택시영업을 하면서 관광택시 예약 및 배차 시 관광택시를 우선 운행하게 되며, 운행 중 전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명소, 맛집 안내 등 기본 관광가이드를 병행하게 된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내실 있는 전주 관광택시 운영을 통해 택시업계의 만성적 불황을 타계하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도시로서의 전주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전주 관광택시 운행자 모집에 재능과 관광가이드에 관심이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신청자격은 65세 이하 전주시 택시운수종사자 중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택시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불친절 민원신고를 받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다.

시는 모범운전자로서 표창을 수여한 경력과 외국어회화 기능여부, 무사고 운전기간, 운수종사자로서 기본마인드 검증 등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20명의 운전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접수는 개인택시는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전주시 개인택시단위조합에, 법인택시는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한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각각 기한 내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최종 선발된 20명의 관광택시 운행자를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교육과 관광가이드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전문 관광택시 가이드를 양성할 계획이다.

선발된 전주 관광택시 운행자는 오는 7월부터 일반택시영업을 하면서 관광택시 예약 및 배차 시 관광택시를 우선 운행하게 되며, 운행 중 전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명소, 맛집 안내 등 기본 관광가이드를 병행하게 된다.



전주 콩나물국밥, CNN이 '주목'

“숙취해소에 큰 도움”

전주 콩나물국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전 세계에 소개됐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세계적인 뉴스전문 채널인 미국 CNN은 이날 전주 콩나물국밥을 포함한 한국음식 10선'을 세계에 소개했다.

'Eating Viet Nam(맛있는 베트남)'의 작가인 영국출신 식도라 작가 그레이엄 홀리데이는 최근 발간한 책 'Eating Korea: Reports on a Culinary Renaissance(맛있는 한국: 음식의 르네상스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음식탐험 일대기를 소개했으며, 이를 CNN을 통해 공개한 것.

특히, 그는 전주에 대해 '한국의 모든 도시를 통틀어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잘 알려진 도시이자, 미식가들의 인식처'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레이엄은 이 책에서 보통 떠올릴 수 있는 전형적인 한식보다는

특색 있고 외국인들에게 다소 낯선 음식들을 소개했으며, 한국음식을 대표하는 10선으로 전주의 콩나물국밥을 선정해 소개했다.

그는 "특별기에 나오는 콩나물국밥은 뽀얀 김을 내뿜으며 숙취해소에 좋은 콩나물과 함께 식탁에 오르는데, 작은 스테인레스 그릇에 수란을 살짝 익혀 같이 먹는다"고 설명했다. 또, "새우젓과 김치, 오징어젓갈들이 반찬으로 같이 오르면, 특히 숙취로 곤욕을 치르는 여행객들에게 있어 그 다음날 아침 훌륭한 술격이자 원기회복을 위한 음식"이라고 극찬했다.

이밖에 한국의 음식 10선에는 서울의 목은지와 갈국수, 무교동 낙지볶음, 춘천의 닭갈비, 안동의 선지국밥, 부산의 품장어, 진주의 비빔밥, 나주의 곱창, 제주의 몸국 등 작가가 직접 가본 음식들이 소개됐다.

/김민근 기자

'집단 암 발병' 익산 함라면 주민, 환경조사 청원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정부에 환경영향조사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해결방안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 청원서와 주민 암 발병 현황, 주민 사망진단서, 오염도 검사결과, 환경오염 현장 사진, 점검현황 등을 첨부한 환경영향조사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악취와 폐수방류로 인해 소류지와 지하수가 오염돼 집단 암 발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로 인해 암환자 10명이 사망하고 현재 9명이 투병 중에 있다며 환자 발생에 따른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

다. 이들은 또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7세대 중 3세대에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으며 대기 오염도 측정 결과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니켈이 검출돼 주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비료원료인 연초박(담배찌꺼기)과 맹독 성분인 피마자박의 리신 특별조사, 환경감시단 특별 지도점검과 건강조사에 나서줄 것을 환경부에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암 발병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청원서를 17일 오후 전달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해피하우스 사업 실시

나후마을 주민들이 어둡고 칙칙한 마을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가는 주민참여 사업이 추진된다.

전주시는 올해 약 3000만원을 투입해 지역주민과 MOU체결기관, 자원봉사 대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피하우스 주민참여사업을 실시한다. 주민 참여 사업은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시에서는 재료비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 작업을 통해 지역·세대·주민 간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소통과 화합으로 마을환경을 개선시키는 마을단위 주거복지 일환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대상마을 주민들이 노후담장 페인트칠과 벽화조성, 타일벽화 꾸미기, 마을 공한지 화단조성, 꽃길 가꾸기 등 각자 원하는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 추진하게 된다.

/김민근 기자

투표권 없는 10대 선거운동하면 '처벌'

도선관위, "3년 이하 징역·600만원 이하 벌금형"

J모 학생, "청소년 의견 제시하는 것 막는 것은 심해"

정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 지지는 자제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나 투표권을 상실한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소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탄핵 촛불집회 등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 자칫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거나 사진을 게재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히 청소년이 인터넷에 특정 후보와 관련된 자료를 올렸다고 해서 바로 고발로 이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맞다"라며 "아직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통상 글을 삭제하도록 안내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활동하는 J모 학생은 "투표권 18세 확대가 요구되는 시대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며 "투표할 권리는 없지만 청소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직선거법 등 법률이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당일에도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같은 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려도 된다. /김민근 기자

"복수할거야" ... 간호사 실습생 스토커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을 스토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김모씨(24.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망상장애 환자인 김씨는 지난 2014년 말 전북의 한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 실습생 A씨에게 반해 만나달라고 쫓아다니다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은 나 사이코패스야. 복수할 거야. 똑같이 갚아줄 거야", "복수

할 거니 말리지 마라. A씨는 정신과에서 남자 교사는 애인, 나 뒤통수 맞음" 등의 협박 및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뒤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